

2007년 1/4분기 축산관측

〈편집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11월 25일에 발표한 2007년 1/4분기 축산관측에 따르면 한육우의 경우 전년대비 하락, 젖소는 감소세 유지로 전망했다. 돼지는 산지사육두수 증가로 23~24만원으로 전망, 산란계·육계 모두 사육수는 증가하나 가격은 700~900원 선으로 전망했다. 이에 본지는 축종별 전망의 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한육우

■ 한육우 사육두수 199만두 전망

9월 한육우 사육두수는 202만 1천두로 전분기에 비해 6만 2천두 증가,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19만 6천두증가하였다. 이 중 한우는 184만 3천두, 육우는 17만 8천두로 한육우중육우는 8.8%를 차지하였다. 한우 가격이 지속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농가의 거세 의향이 낮아짐에 따라 도축두수 중 기세우 비중이 2005년 45.6%에서 2006년 36.0%로 9.6%p 하락하였다. 12월~내년 2월 송아지 생산두수는 18만 7천두, 도축두수는 17만 4천두가 될 것으로 보이며 한육우 사육두수는 12월 199만 6천두, 내년 3월 201만두로 전망된다.

■ 한우 산지가격 전년대비 하락 전망

10월부터 미국산 최고기 수입이 재개되었으나 미국 즉 최고기 수준업체가 뿔조각이 포함된 최고기도 수입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하며 선적을 보류하고 있어 실질적인 수입실적은 없는 상황이다. 최고기 공급물량 증가로 12월~내년 2월 한우 암소 산지가격은 전년동기대비 17.2% 하락한 460~48만원대(600kg 기준), 수소 가격은 390~410만원대(8.4% 하락), 수송아지 가격은 190~210만원대(6.6% 하락)로 전망된다. 국내산 최고기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한육우의 기세비중을 높여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1등급 이상 고급육 생산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

젖 소

■ 젖소 사육두수 감소세 내년에도 지속 전망

지난해 1월부터 원유 체세포의 패네티 기준이 강화되고 고능력우 위주로 사육이 이루어지면서 젖소 배합사료 중 고능력우용은 2% 증가하였다. 올해 상반기 인공수정 실적이 감소하여 내년 3월 송아지 생산은 감소할 전망이다. 12월 1세미만 잠재력 지수는 작년 12월보다 1%, 내년 3월 잠재력 지수는 5.6% 감소하였다. 12월 젖소 사육두수는 46만 4천두로 지난해 12월보다 3.2% 감소할 전망이다. 내년 3월에는 46만 2천두로 4.1% 감소할 전망이다.

■ 생산감소, 소비 증가로 10월 분유 재고 급감

원유 생산량은 감소하였고, 시유 판매량이 증가하여 올해 5월부터 분유 재고가 지난해보다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10월 분유 재고량은 지난해 10월보다 56.6% 감소한 4,041톤이었다. 12월~내년 3월 착유우 두수가 3%대에서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 1/4분기까지 원유 생산량은 감소할 전망이다. 고능력우 위주 사육으로 두당 산유량이 증가하여 생산량 감소 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4/4분기 원유 생산량은 53만 5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감소하고, 내년 1/4분기에는 54만 4천 톤으로 1.8% 감소할 전망이다.

돼 지

■ 내년 3월 사육두수 지난해보다 증가 전망

올해 6월~9월 평균 모돈수가 4.4% 증가하여 12월~내년 3월 사육두수는 지난해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돼지 폐사율이 높고 신규 출사 건립이 힘들어 돼지 사육두수가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12월 사육두수는 930만 7천두로 지난해 12월보다 3.8% 증가하고, 내년 3월 사육두수는 934만 2천두로 올해 3월보다 3.7% 증가할 전망이다. 질병으로 인한 폐사율이 지난해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농가에서는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단련, 환기, 밀집 사육 자제 등 사양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12월~내년 2월 산지가격 23~24만원

9월 가축통계의 4개월령 미만 사육두수가 증가하였지만 질병으로 인한 폐사율이 높아 내년 2월까지 출하두수는 지난해보다 증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출하두수는 증가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돼지고기 수입량 증가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로 12월~내년 2월 성돈 산지가격은 지난해보다는 하락할 전망이다. 12월~내년 2월 성돈(100kg) 산지가격은 23~24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4만 9천원)보다 5.8% 하락할 전망이지만, 평년(18만 7천원)보다는 25.6% 상승할 전망이다.

산란계

■ 내년 3월 사육수수 올해보다 증가전망

내년 3월 산란계 사육수수에 영향을 미치는 산란용 종계 병아리 임식수수는 감소하나 도태의향이 낮아 내년 3월 사육수수는 올해보다 7.1% 증가한 5.730만수로 전망된다. 농가의 산란 도태의향이 낮아 내년 3월의 산란용 마리수는 올해보다 1.9% 증가한 4.330만수로 전망된다. 산란용 마리수가 증가하나 생산성이 낮은 도계군 상당수가 계란 생산에 가담할 것으로 예상되어 12월~내년 2월 계란 생산

량은 전년동기기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12월~내년 2월 계란 평균가격 700~900원 전망

계란 공급량이 다소 감소하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수요 감소가 예상되어 12월~내년 2월 계란 가격은 전년기보다 하락한 700~900원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계란 소비 위축이 장기화 될 경우 계란 가격은 전망치의 최저치(700원)에서 형성될 수도 있다. 산란용 마리수 상당수가 도계군이어서 지속적으로 도계 도태가 지인될 경우 계란의 품질 저하와 가격의 약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육계

■ 12월 사육수수 증가전망

11월 병아리 생산수수가 지난해보다 증가하여 12월 육계 사육수수는 전년보다 7.5% 증가하나 11월보다는 8.5% 감소한 5.420만수로 전망된다. 12월 도계수수는 사육수수 증가로 전년보다 7.6% 증가하나 11월보다는 1.7% 감소한 4.465만수로 전망된다. 종계 임식수수 증가로 12월 병아리 생산 잠재력은 지난해보다 증가하여 육계 사육수수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내년 1/4분기 병아리 생산 잠재력은 올해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 12월 육계 가격 700~900원 전망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닭고기 수요 감소로 12월 육계 평균 가격은 전년 1.318원보다는 크게 하락한 700~900원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 익산 종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에 따라 향후 닭고기 수요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닭고기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고 산란율이 낮은 종계 신계군의 생산성이 정상으로 회복될 경우 공급과잉으로 12월 이후 육계 가격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